

2012년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연극분야 심사평

연극분야 심사평

- 일시 : 2012. 4. 24(화) 16:00 ~ 18:00
- 장소 : 본관 3층 도서실
- 심의위원 : 이병훈, 김성희, 최현묵, 송현옥, 황치준

2012년도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 1차 공모에서 예심 통과되어 공연한 23편의 작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5명의 책임심의위원이 6개월의 공연기간 동안 현장 실연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였으며, 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심사 후 개별적인 채점을 하였다. 희곡, 연출, 연기, 무대예술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에 70%의 절대적인 비중을 두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작품의 완성도, 작품에 임하는 태도,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상상력이 작품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지, 배우들의 앙상블이 잘 이루어졌는지가 중점 검토되었다. 아울러 공연계획을 충실히 실행 했는지와 공연이 연극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도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채점 결과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된 작품의 심사의견과 지원 결정액은 다음과 같다.

1. 명품극단 <THE GAME>

토스토예프스키 원작 <죄와 벌>을 시.청각적 이미지로 창의적이며 완성도 있게 무대화 하였다. 연출적 개념이 돋보이고 개념의 형상화로 공간설정의 입체성과 확장성이 뛰어났다. 인물들 간의 심리 갈등과 주제를 배우들이 잘 표현한 점도 극을 잘 살린 요소였다. 이러한 양식의 연출이 공연예술계에 기여하는 점도 높이에 평가 하였다. 6천만 원 지원 결정

2. 가마골소극장 <코마치후덴>

원작의 힘이 탁월했으며, 다소 난해한 희곡이지만 연출가 특유의 창조적 재해석이 선명하여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내며 연극성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한국의 전통연희를 응용한 연기술 및 무대표현, 과거와 현재를 영속하는 시간성과 삶과 죽음을 철학적 사유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였다.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이 좋았고, 주연 여배우 김미숙이 탁월한 연기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뛰어났다. 5천만 원 지원 결정

3. 하땅세 <천하제일 남가이>

연출의 뛰어난 상상력과 재치로 소설의 서사를 연극성이 풍부한 무대표현과 기호들로 잘 표현해 냈다. 소박하고 거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젊은 극단 특유의 개성과 에너지를 유감없이 표출하였다. 배우들의 앙상블도 돋보였다. 단순한 무대이면서도 활용도와 변화가 다양하였다. 관객의 호응도도 매우 높았다. 5천만 원 지원 결정

4. 종이로 만든 배 <남아있는 나날들>

프랑스 일상극의 전범을 보여주는 연극을 차분하고 성실하게 무대화 하였다. 얼치기 일상극이 유행하는 한국연극계에 기여하고 시사하는 바도 높게 평가되었다. 연출가의 인생에 대한 통찰이 깊어졌고, 젊은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낸 연기 앙상블도 빛났다. 소극장의 공간활용과 무대 운용도 돋보였다. 4천만 원 지원 결정

5. 연희단거리패 <변두리극장>

독일 카바레 연극의 형식을 잘 소화하여 재치 있고 재미있게 무대화 하였다. 광대극으로서 훈련된 배우의 재능이 빛난 공연을 보여주어 새삼 배우예술이라는 연극성을 느끼게 하였다. 한국적인 각색이 아니기에 서사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고 시사풍자 같은 카바레 연극의 특성이 살아나지 않은 점은 아쉬웠으나, 광대극의 양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4천만 원 지원 결정

6. 고래 <빨간 시>

시의성 있는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판 의식을 힘 있게 표출하였다. 주연배우 강애심의 연기력이 시종 무대를 압도하면서 극의 성공을 이끌었다. 정신대와 연예인 성상납이란 2가지 주제를 교직하고 있는데 서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작위적이었으며, 이승과 저승을 교직한 판타지적 구성도 무리가 있는 점은 아쉬웠다. 4천만 원 지원 결정

7. 극단 청맥 <화장>

한국과 일본의 미학적 대비를 무대 형상화를 통해 잘 보여주었고 탐미적인 무대 이미지 표현이 뛰어났다. 흥미 있는 소재였으나 서사와 인물 구도가 작위적이며 개연성이 떨어진 점이 지적되었다. 복잡한 서사를 좀 더 압축하고 적극적인 개작이 필요해 보였다. 3천만 원 지원 결정

8. 극단 프랑코포니 <난 집에 있었지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프랑스 현대희곡의 대표적 작품인 동시대 연극의 경향을 소개하였고, 진지하고 아카데미한 언어연극이라는 점에서 공연에 의미를 부여하고 높이 평가하였다. 좋은 배우들의 앙상블은 훌륭했으나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히 살리지 못한 표현의 부조화가 지적되었다. 연출적 상상력이 미흡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었다. 3천만 원 지원 결정

연극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2012년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무용분야 심사평

무용분야 심사평

- 일시 : 2012. 4. 17(화) 17:00 ~ 19:00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 심의위원 : 양정수, 정은혜, 박희태, 유인화, 황치준

2012년도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 1차 공모에서 예심 통과된 총 8편의 작품 중 단체의 사정으로 취소된 1편을 제외하고 7편의 작품을 심의하였다.

5명의 책임심의위원이 6개월의 공연기간에 현장 실연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였으며, 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심사 후 개별적인 채점을 하였다. 안무, 연기, 무대예술, 음악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에 70%의 절대적인 비중을 두어 높은 점수를 주었고, 공연계획을 충실히 실행 했는지와 공연이 무용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도 평가하였다.

우수 공연작품을 발표한 단체를 집중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 창작물 개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 추진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책임심의위원회는 선택집중 지원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심의에 임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1차 추천된 4개 단체의 작품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여, 최종적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하고 대폭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전문무용단체인 YJK댄스프로젝트에 7천만원, 이경옥무용단에 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개 작품에 대한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1. YJK댄스프로젝트 <더 라스트 월>

안무를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하여 안무가 영상을 끌어가면서 첨단적, 감각적,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 주었다. 무용수들의 표현력도 안무가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살렸다. 무용의 미학적 동작을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춤을 둘러싼 영상과 미디어아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현대인들의 소통 부재를 현대적 감각과 연극적 움직임으로 풀어나가 총체적 예술로 선보였다.

2. 이경옥무용단 <슬픈빨강-헨젤과 그레텔에게>

20년 동안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텍스트로 일관성 있게 무용의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기존의 동화를 안무가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심도 있고 세련된 한국 춤사위로 풀어내었다. 독립안무가로 역량을 꾸준히 보여 준 이경옥의 몸짓이 잘 묻어났고 자리매김이 된 듯 하였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하며 소통과 공감의 폭을 넓히고 춤 예술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춤예술로 사회적 기여를 하는 작업 정신도 높이 샀다.

무용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2012년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음악분야 심사평

- 일시 : 2012. 04. 20(금) 15:00 ~ 17:3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박영근, 허미경, 이석렬, 정준호, 김창욱

□ 총평

2012년도 공연예술창작기금(1차공모/본심) 음악분야에는 예심을 통과한 총 12개 단체 중 최종 6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예심을 통과한 심의대상사업들의 공연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공연성과보고서 등 공연결과물을 당초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하였다.

심의기준은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공연계획 실행의 충실성, 공연성과 및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그간 창작품의 개발과 소개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던 창작오페라가 2건 선정되었다. 또한 기획의 참신성과 예술적 완성도와 함께 우수 창작물의 발굴 및 발표를 활발히 해온 단체의 활동역량 등에 비중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지역의 창작활성화를 위해 지역안배도 감안하여 지원결정하였다.

제한된 예산으로 우수한 창작물을 보다 많이 지원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여긴다. 차기 지원신청에는 보다 많은 창작품들이 신청되어 우수창작물 개발과 역량있는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며 참여해주신 모든 단체에게 감사드린다.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세부평가

1. (사)TIMF앙상블

현대음악 전문연주단체로서, 창작곡의 비중이 높은 공연을 소개하였는데 국악과 서양음악을 조화롭게 결합한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연주회였다. 발표된 창작곡의 예술적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우수했으며 기금지원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공연이었음.

2. (사)화음

국내 대표적인 실내악단체로 그간 국내 창작곡 수용과 연주에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 창작음악으로만 구성된 연주회로 미술과 음악이 결합된 독특한 프로젝트는 그간 많은 한국 창작물의 발굴과 레퍼토리화를 위해 노력해온 동 단체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무대였다. 발표된 창작성들과 관객과의 소통이 돋보였으며 예술적 완성도가 높았다.

3. 광주여성필하모닉

지역의 민간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는 동 단체의 이번 공연은 동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작곡가와 연주자들에 의한 창작성 개발이 고무적인 공연이었다. 지역의 정서를 담은 관현악곡과 성악곡을 다양한 기획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4. 사단법인 고려오페라단

손양원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오페라로 관객의 몰입도가 매우 높은 공연이었다. 비교적 친숙한 화성과 선율을 바탕으로 청중의 호응도를 이끌어내었고 특히 합창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창작오페라 활성화 측면에서 고무적인 공연이었다.

5. 서울기타과르텟

이번에 발표된 창작곡은 전체적인 곡의 완성도가 높았고 기타 4중주라는 편성의 매력을 잘 살린 작품이었다. 서울기타과르텟의 이번 공연은 기타앙상블 창작곡을 일반인에게 초연 소개함으로써 단체의 예술적 역량제고와 함께 해당 장르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연주회였다.

6. 음악과영상창작집단NOW

1인 오페라라는 독특한 기획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관객의 호응도도 뛰어난 공연이었다. 도산 안창호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물로 소프라노 주역 1인이 다역을 소화해내는 실험적 시도와 영상을 활용한 새로운 연출과 표현을 시도한 점 등 단체의 노력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2012년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전통예술분야 심사평

- 일시 : 2012. 4. 16(월) 15:30 ~ 18:00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김성욱, 김희선, 노복순, 이정만

□ 심사평

2012년 공연예술창작기금 지원사업(1차공모/본심) 전통분야는 예심을 통과한 11개 단체 중 단체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1개 단체를 제외하고, 10개 단체에 대한 현장 평가와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7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본심 회의는 사업내용과 심의계획서에 대한 개요소개, 공연 현장 실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책임심의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심의하였다.

1. 전통창작분야로서 전통적인 음악어법과 내용들이 잘 채워졌는가?
2. 연주자와 관객들과의 호흡, 그리고 작품이 예술적 수월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는가?
3. 신청서의 내용이 공연현장에 반영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가?
4. 단체 결과보고서에 자율평가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가?
5. 향후 공연단체나 작품의 보완의 여지, 의지,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책임심의위원 간의 토의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대해 창작기금신청액과 공연 제작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나 제작방식의 충실성이 결여되거나, 차후 완성도 높은 수준의 작품제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체의 작품은 제외 하였으며,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작품의 현장 실사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고, 이건을 조율하여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전반적인 공연 진행의 충실성, 관객 호응도 및 국악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통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작품 평가내용

○ (주)신명을 일구는 사람들

전형적인 마당극 형태의 공연을 완성도 높게 선보였다. 80년대 90년대의 마당극이 선/악의 대비 또는 사회현상 비판의 중심에서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했다면, 천성연분 내사랑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연극과 전통음악의 조화, 연기와 음악의 조화를 중시하며, 현재의 이야기를 마당극적 양식으로 잘 풀어냈으며,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지하게 연마한 전통음악 판소리를 해설로 등장시키고, 적절한 장면에 전통음악 악사들의 연주가 함께 했으며, 연기자들 또한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악기와 무대를 효과적으로 사용했고, 춤과 연기가 전통적 요소와 현대사회의 모습을 현실감있게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다음 작품도 기대하게 됨.

○ 놀이마당 올림

사람의 인생을 국악공연 양식을 집대성해 년버벌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다분히 연기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연희가 등장했으며, 타악과 무대가 공연의 의도를 표현하기에 적절하게 배치돼 음악적 공간적 조화를 이뤘다. 전통타악 연주 이외에도 폐품 난타, 색소폰 연주, 놀이, 부포놀이, 소고놀이, 마임, 그림자 연기 등이 선보였고, 별도의 악사석에서 연주를 선보여 공연에서 보여주고자 한 의도를 음악과 연기, 퍼포먼스 등으로 다양하게 선보였다. 극의 내용과 연주, 퍼포먼스 등에서 각각이 최고의 작품적 완성도를 도출시키지는 못했으나, 다양한 요소들의 사용과 주제가 있는 퍼포먼스로 관객의 반응을 잘 이끌어내, 나름 신선한 양식의 공연형태로 다음 작품을 기대할 볼 만 함.

○ 아나야

한국적 정서를 대중적 취향의 음악양식으로 잘 풀어냈다. 연주자 각자의 연주력이 뛰어남. 특히 국악공연에선 보기 드물게 가요보컬과 랩, 민요보컬을 전담하는 역할이 나뉘져 있고, 이들의 연주력과 호흡이 좋아 관객의 호응을 불러일으킴. 또한 대금과 국악타악을 비롯한 국악기와 기타와 베이스 등의 연주자의 능력과 호흡은 작품을 더욱 빛내줌. 하지만, '민요콘서트'라는 새로운 형태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나, 전통음악적 요소에 기반한 민요의 아름다움이 다소 미흡했음. 콘서트 형태를 드러내며,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어냈음. 콘서트와 유사한 연출처럼 음향의 볼륨을 높이고, 야외용 콘서트식의 조명과 음향 효과를 사용했는데, 콘서트를 지향한 공연장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었음.

○ 음악동인 고물

남도음악이나 판소리에 비해 경서도 소리는 음악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지 못해 상대적으로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함에 착안하여 경서소리에 기반한 음악극을 기획하였다. 기획부터 무직테아터라는 무대관련 개념과 유토피아적인 픽션,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와의 통합으로 새로운 개념의 음악극을 만들고자 한 야심찬 작품이었음.

새로운 작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열정과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지향점에 높은 평가를 하며, 차기작품이 기대가 됨.

○ 타니모션

한국적 음악의 바탕위에서 현대음악을 잘 만들어가는 단체로 한국음악·서양음악의 다름이나 경계등을 개의치 않고 우리의 음악언어를 중심으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충실한 무대였음.

이 시대의 신진 예술가들의 고민을 그들의 눈높이로 작품속에 녹여 낸 세련미는 원숙미까지 담았음.

모든 음악을 전통음악에서 소재를 찾아 오늘날의 음악으로 표현하여 관객들에게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주었고, 연주자들에게서는 자신감과 음악과의 일체감으로 예술적 완성도에 한걸음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이번 공연에서도 다양한 창작곡들을 선보여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음.

○ 풍악광대놀이 예술단

한국전통음악의 악가무의 전통을 바탕으로 재즈, 퍼포먼스, 풍물놀이를 무대화하여 다양한 악곡을 활용하여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무대를 구성하였음.

연말 송년 공연의 의미로서 적절하였으며, 특히 단체의 부종목인 풍물과 모듬 타악을 바탕으로 공연 레퍼토리화 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지역의 열악한 음악환경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연출 할 수 있는 역량에 갈채를 보냄. 전체적으로 전통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연주자들의 수준에 맞게 잘 구성하고 연출하여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음.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커 보이는 단체임.

○ 한국거문고양상블

거문고를 중심으로 한 전문연주단체로 거문고 연주영역과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알찬 공연이었음. 중주, 합주 등의 연주와 거문고가 중심이되는 관현악편성의 연주의 영역에도 한 발 나아가 거문고 연주 영역을 발전시켰고, 기존의 곡을 새로운 편

성으로 편곡하거나 새로운 곡을 위촉해 침체되어 있는 거문고연주 활동에 모범을 보임. 장점을 잘 살린 작품과 연주력으로 수준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음.

전체적으로 거문고를 중심으로 한 음색적인 조화나 장단의 어울림, 새로운 악기구성 등이 조화로웠고, 기존곡의 경우도 새로운 편곡으로 다양성을 담보하며, 협연자의 뛰어난 연주력과 카덴자 등 연주의 지평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공연을 선보임.